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발행인 : 이 민 규

인쇄일 : 2013년 6월 30일

주 소 :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사회과학대학 임상/건강 심리 연구실 (151동 423호)

전 화 : 055-762-2080 팩스 : 055-772-1219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paran.com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18, No. 2.

June. 2013.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paran.com)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jwa-dong,
Jinju City,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이 학술지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이사 이 철 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 지 선 (건국대학교병원)
재무이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이 형 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감 사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손 정 략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서 은 수 (경상대학교병원)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18 권 제 2 호

[개관논문]

건강에 대한 심리적 개입의 새로운 지평 : 융합접근에서 심리학의 역할과 마음모형
..... 김 교 현 / 251

[경험논문]

수용 전념 치료(ACT)가 발표불안이 있는 대학생의 사회적 회피와 자기-초점적
주의에 미치는 효과
..... 김 진 미 · 손 정 락 / 267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 연 영 란 · 이 경 순 / 285

수용전념치료(ACT)가 대학생의 대인 불안,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사회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 김 미 옥 · 손 정 락 / 301

청소년용 대인 특성용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 오 영 희 / 323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비교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신체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 류 애 리 · 송 원 영 / 345

HIV 감염인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임 세 아 · 김 일 옥 / 363

노년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노출과
하향 사회비교의 역할
..... 서 경 현 · 김 태 민 · 손 솔 · 김 혜 경 / 379

분열형 인격성향을 가진 여자대학생의 지적 기능과 분열 증상 간의 관련성
..... 김 솔 지 · 김 명 선 / 401

청소년용 대인 특성용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오 영 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서라는 도덕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참여자는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남녀 1,533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대인 특성용서 척도, Heartland 용서 척도, TRIM, Spielberger의 상태분노와 상태불안 척도, CES-D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니 먼저 대인 특성용서 척도(최종 11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 .79$)와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 = .75$)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둘째,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용서특성 척도는 용서반응, 긍정적 용서신념, 부정적 용서신념이라는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 특성용서 척도는 외국의 용서 척도인 Heartland 용서 척도와 TRIM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서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용서 점수는 분노, 불안, 우울 점수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 점수는 성별, 지역,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준은 백분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학교폭력, 용서특성 척도,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12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영희, (132-714)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대 심리학과, Tel: 02-901-8305, E-mail: yhoh@duksung.ac.kr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의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무시되고 있다가, 2011년 대구의 중학생 자살사건¹⁾을 계기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마스크에서 학교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이 자주 다루어지고, 2012년 2월 6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²⁾. 이 종합대책에서는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직접대책(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과 인성교육 실천이라는 근본대책(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위주의 정책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도덕성 발달론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오영희, 2001).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은 비도덕적인 행동임을 강조하는 정신(가치체계)을 만들고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학교폭력을 절대 허용되지 않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용서라는 도덕적 특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용서인가? 지금까지 사례연구, 상관 연구, 실험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갈등 상황에서 분노, 우울, 불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집착, 충동적인 행동, 강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희망,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분노감정의 통제, 부부와 가족관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오영희, 2004, 2007; Controneo, 1989; Enright & Fitzgibbons, 2000). 용서와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용 지표는 분노, 우울, 불안이다. 이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외국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면 용서는 분노와 $-0.26 \sim -0.44$, 우울과 $-0.34 \sim -0.51$, 불안과는 $-0.15 \sim -0.43$ 의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Mullet, Neto, & Rivere, 2005).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박종효, 2006; 오영희, 2004, 2007).

또한 용서는 신체건강을 향상시켜주는데, 그 생리학적 매개과정을 살펴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반응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교감신경, 심혈관, 면역 및 내분비체계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는 반면에 용서반응은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을 낮추고 생체 적응성을 회복하여 신체건강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박종효, 2003).

이처럼 용서는 특히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고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갈등 상황에서 한 개인의 정

1) 이 사건은 대구에 사는 중학생 김군에게 친구들이 2011년 9월부터 석달 동안 자신들을 대신해 인터넷 게임 실적을 쌓도록 강요하고,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김군을 목검, 단소, 클러브 등으로 때리고 돈을 빼앗는 일을 계속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해 김군이 자살한 사건이다(매일신문, 2011).

2) 자세한 정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설한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사이트(www.stopbullying.or.kr)에 나와 있다.

신건강과 적응을 향상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대인 관계까지 향상시켜준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용서와 학교폭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용서가 중요한 한가지 이유는 개인내적인 것으로 용서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을 통해 한 개인이 부당하게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박종효, 2003; Enright & Fitzgibbons, 2000). 따라서 용서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자들은 크게 세 집단으로 분류된다: 가해자, 단순 피해자, 공격적 피해자(피해/가해자). 특히 공격적 피해자는 학교폭력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으로, 단순 피해자들이 폭력에 대해 수동적이고 위축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들은 폭력적 또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화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박종효, 2011). 이 때문에 이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화하게 된다. 2012년 2월 대구에서 발생한 ‘폭력 대물림’ 사건에서는 몇 명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건방지다”며 땅에 파묻는 등 기성세대의 조폭을 뽑칠 정도로 괴롭혔지만, 그 선배들도 이전에는 피해자였던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박태우, 2012). 이 사건은 공격적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와 회복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 피해자는 가해자나 단순 피해자 집단보다도 학습, 사회, 심리 그리고 정신건강 등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심각하게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Hsynie, Eitel, Crump, & Yu, 2001; 박종효, 2011에서 재인용).

또한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위험한 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에 공격적 피해자가 용서를 배우게 되면 자기치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박종효(2011)가 공격적 피해자를 위한 용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공격적 피해자가 자신의 공격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서 왜곡된 사회지각을 바로 잡고 증폭된 분노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인관계적인 것으로 용서는 갈등과 상처로 인해 파괴된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 준다(Gouldner, 1973; Enright, 2012).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모욕을 당하거나, 화가 나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학생을 여관방에 가두고 1주일간 폭행한 사례가 있었다(SBS, 2013). 놀랍게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주 친한 친구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경우에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 친구를 용서할 수 있었으면, 피해자가 폭력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범죄자가 되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구관계가 유지되고, 서로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용서라는 특성을 길러주면 공감과 수용능력이 생겨서 애초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갈등이 생기더라도 긍정

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현재 외국에서는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예방적인 갈등 해결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Enright, Gassin과 Knutson(2003)은 심각한 분쟁지역으로 알려진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와 미국 밀워키 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초등학교에서 용서교육을 실시하는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용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바람직한 사후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용서에 대한 접근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은 특수한 상황에서 용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후대책 방법도 있으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도덕성 발달론적인 방법으로서 용서라는 도덕적 특성을 어릴 적부터 길러주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은 인간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미덕과 강점을 찾기 시작했다(Seligman, 2004/2007). 그 결과 놀랍게도 전 세계에 보편적인 6개의 미덕(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감, 절제력, 영성과 초월성)이 있고, 미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24개의 강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 내었다. 이것을 Peterson과 Seligman(2004)은 VIA(Values in Action) 분류체계로 제시하였는데, 용서는 절제라는 미덕에 포함되는 강점이다.

30여년간 용서를 연구해 온 Enright도 최근에 특정한 상처에 관련된 용서프로그램을 통해서

1-2번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덕의 윤리적 접근(virtue-ethics approach)을 통해서 지속적인 도덕적 삶의 일부로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Enright, 2012).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용서라는 미덕을 개발함으로써 용서가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심각한 분쟁지역인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와 미국 밀워키 지역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초등학교에서 용서교육을 실시하는 연구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Enright et al., 2003).

요약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도덕성 발달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에서 용서라는 도덕적 성격특성(미덕 또는 강점)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맞는 용서척도와 용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용서연구들은 외국의 용서 척도와 용서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광수, 1999; 오영희 2006).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 척도이다. 용서라는 추상적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롭고 타당하게 용서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 척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서 척도들은 외국 척도들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용서 척도들은 일부 문항의 부적합성,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의 부적합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오영희, 2010).

용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첫째, 용서를 하는 사람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용서는 크게 다르다.

둘째,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인용서, 자신을 용서하는 자기용서, 상황을 용서하는 상황용서, 신을 용서하는 용서 등이 있다. 셋째, 용서를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이나 성향으로 볼 수도 있고, 특정한 상처를 입힌 사람에 대한 특수상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성진과 서경현(2011)은 분노의 경우처럼 진자를 특성용서로, 후자를 상태용서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용서척도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용서척도를 개발하면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인용서상태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오영희, 2010, 2011).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용서연구의 대부분이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특정한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상태용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타당한 척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본 연구에서는 상처를 준 특수한 대상에게 적용하는 상태용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격특성 또는 미덕으로서의 용서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덕성 발달과 적응을 위해서 용서라는 특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용서 척도를 만들고자 한다.

특성용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외국 척도는 Multidimensional Forgiveness Inventory (Tangney, Fee, Reinsmith, Boone, & Lee, 1999), Heartland Forgiveness Scale(HFS, Thompson & Snyder, 2003; Thompson, Snyder, Hoffman, Michael, & Rasmussen, 2002)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HFS인데, 이 척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HFS는 총 18문항으로, 부정적인 일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을 때 자기를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용서성향 6문항, 타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 타인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타인용서성향 6문항,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상황용서성향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용서에 대한 사고와 용서행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성용서 척도가 개발되었다. 김지영과 권석만(2009)은 성격적 강점으로서의 용서가 주관적 안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0문항의 특성용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도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용서행동과 사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조수아, 권석만, 임영진(2011)은 개인의 용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용서신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19문항의 용서신념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하고 있고 용서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측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하는지에 대한 용서행동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용서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용서특성은 평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사고(신념)뿐만 아니라, 평소에 부당한 상처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용서하는지에 대한 용서행동(반응)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서에 관한 문헌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도덕적 성격특성으로서의 용서를 측정하는 특성용서 척도를 만들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특성용서는 대인 특성용서로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용서반응과 용서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용서반응은 ‘한 개인이 상처를 받은 후에 보이는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인지적, 정서

적, 행동적 반응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오영희, 2010, 2011)

대인 특성용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과 다른 용서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준거관련타당도는 특성용서와 대표적인 부적응 변인들(불안, 분노, 우울)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성용서 척도의 규준을 백분위로 제시하였다.

방 법

참여자

참여자들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533명이며, 인구통계학적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구분	특성	사례수	백분율
성별	남자	715	46.6
	여자	818	53.4
거주지역별	서울	369	24.1
	경기도	129	8.4
	충청도	502	32.7
	전라도	264	17.2
	경상도	269	17.5
종교별	기독교	514	33.6
	불교	222	14.5
	기타	19	1.2
	무교	774	50.6

측정도구

대인 특성용서 척도.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서 최종 문항은 11문항으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얼마나 용서반응을 보이는가를 측정하는 용서반응 문항 5개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용서신념 문항 6개이다. 이 중에서 긍정 문항은 6개, 부정 문항은 5개이다(용서반응의 부정 문항은 3개, 용서신념의 부정 문항은 2개). 각 문항에 대해서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부정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용서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특성이 높은 것이다. 특성용서 점수의 범위는 11-55점이다. 부록 1에 이 척도가 제시되어 있다.

Heartland 용서 척도(Heartland Forgiveness Scale, HFS). Thompson 등(2002)이 개발한 이 척도는 일반적인 용서성향을 측정하는 특성용서 척도로서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HFS는 총 18문항으로, 부정적인 일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을 때 자기를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용서성향 6문항, 타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 타인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타인용서성향 6문항,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상황용서성향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번역은 본 연구자가 국문으로 번역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심리학전공자가 영문으로 역번

역하였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론을 거쳐 원래의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 HFS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hompson & Snyder, 2003). 외국 연구에서 보고된 HFS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척도는 .84-.87, 하위 척도는 .71-.83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는 .83, 자기용서성향은 .63, 타인용서성향은 .71, 상황용서성향은 .67로 나왔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7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성향이 높은 것이다(범위: 전체 척도는 18-126점, 각 하위 척도는 6-42점).

가해관련 대인관계 동기 척도(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 McCullough 등(McCullough, Pargament, & Thoresen, 2000; McCullough, Rachal, Sandage, Worthington, & Brown, 1998)이 개발한 이 척도는 특정한 상처(가해)를 입힌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하는 대인 상태용서 척도로서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TRIM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총 12문항인데,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는 회피동기를 측정하는 7문항과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복수동기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문항을 합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Heartland 용서 척도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McCullough 등(1998)이 보고한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복수동기가 높고 용서가 낮은 것이다(범위: 전체 척도는 12-60점).

분노 척도. Spielberger의 STAXI 척도를 전 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1997)가 번역하고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분노 하위 검사(상태분노, 특성분노)와 분노 표현양식 하위 검사(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검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현재의 부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할 당시의 분노감정을 측정하는 상태분노 10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거의 언제나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검구 등(1997)이 보고한 상태분노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왔다. 상태분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 것이다(범위: 10-40점).

불안 척도.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을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1996)가 번역하고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검사할 때의 불안을 측정하는 상태불안 검사 20문항, 평상시의 불안을 측정하는 특성불안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불안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상태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이다(범위: 20-80점). 한덕웅 등(1996)이 보고한 상태불안 검사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왔다.

우울 척도.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 검사를 사용하였다. CES-D 검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서 정신병리적인 우울보다는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검사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영어판 검사도구를 일부 새롭게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0점('극히 드물게')에서 3점('거의 대부분')까지 Likert식 4점 척도를 이용해서 평정하였다. 전검구 등(2001)이 보고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90이 나왔다.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범위: 0-60점).

절차와 자료 분석

대인 특성용서 척도의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쳤다. 1단계는 1차 예비문항을 선정하는 단계로 용서 참고문헌들, 오영희(2006)의 한국인의 용서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나온 경험적 자료, 오영희(2011)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을 이용하여 20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예비문항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용서반응과 용서에 대한 신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단계는 전문가의 문항검토 단계로 용서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5년 이상 용서연구를 하고 있는 용서전문가 2명과 교육학 연구자 1명에게서 문항 검토를 받아서 4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3단계는 최종문항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단계로 16개의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특성용서 척도와 다

른 척도들을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생 4명(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2011년 11월에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불안 척도, 분노 척도, 우울 척도, 대인 특성용서 척도, Heartland 용서 척도, TRIM의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작성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4단계는 문항선별단계로 특성용서 척도의 예비 문항들에 대해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문항분포와 문항-총점 상관(.30이상)을 검토하였는데 16문항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단계로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1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이후 최종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9.0과 AMOS 4.0을 이용하였고, 통계방법은 Cronbach's α , 평균, 표준편차, Pearson r , t 검증, 변량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결 과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

대인 특성용서 점수가 성별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성별이나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후의 분석은 성별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성타당도 1: 요인분석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16개의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KMO(Kaiser-Meyer-Olkin)지수는 .88로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형성 검증을 위한 Barlett 검증 결과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120, N = 1533) = 6351.01, p < .001$. 척도의 적절한 요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초기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이 3개로 나왔다. Scree 도표, 설명변량, 그리고 해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볼 때 3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고 Eqimax방식으로 회전시킨 후 요인분하량이 낮거나(<.30), 교차 부하값을 보이는 문항을 탈락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11개 문항이 남게 되었다. 최종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기준은 .50이상이다.

1요인은 '용서반응 특성' 요인으로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때 얼마나 용서반응을 보이는가를 측정하는 긍정과 부정의 5개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유치는 3.06이고, 설명변량은 27.79%이었다. 2요인은 '긍정적 용서신념 특성' 요인으로서 평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나타내는 용서신념 문항중에서 성숙한 용서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긍정 문항 4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유치는 1.07이고, 설명변량은 9.70%이었다. 3요인은 ‘부정적 용서신념 특성’ 요인으로서 용서신념중에서 용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미성숙한 신념을 나타내는 부정 문항 2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유치는 .47이고, 설명변량은 4.26%이었다. 세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41.75%였다.

AMOS 4.0을 이용하여 3요인 모형과 경쟁모형

인 1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모형으로 1요인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대인 상태용서에 대한 연구에서 용서가 외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지, 정서, 행동반응으로 구성된 3요인이라기 보다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오영희, 2008, 2010).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수로는 χ^2 와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만족스러운 적합도

표 2. 대인 특성용서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용서반응 특성			
1.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편이다.*	.688	.099	.287
2. 상처 준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668	.083	.276
4.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편이다.*	.555	.098	-.009
5. 시간이 지나면 상처 준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하다.	.532	.079	.274
3. 상처를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다.	.516	.280	.053
요인 2: 긍정적 용서신념 특성			
6. 용서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131	.629	.222
9.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	.036	.612	.254
11. 용서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098	.580	.133
8. 용서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188	.574	.124
요인 3: 부정적 용서신념 특성			
7.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 볼 수 있다.*	.177	.198	.633
10.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보상없이 용서할 수 없다.*	.094	.205	.551
고유치	3.06	1.07	.47
설명변량	27.79%	9.70%	4.26%
누적설명변량	27.79%	37.49%	41.75%
신뢰도	.76	.73	.59

* : 역산문항(1, 2, 4, 7, 10번)

표 3. 1요인과 3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3요인	115.16(41)	.000	5.49	.99	.99	.05
1요인	1172.20(44)	.000	26.64	.96	.97	.13

지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TLI(Tucker-Lewis Index 또는 NNFI),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본다(홍세희, 2000).

표 3를 보면 3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보다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MSEA에서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표준

화 계수의 범위는 .50 ~ .76이며, 모두 유의미하였다(부록 2에 각 문항의 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구성타당도 2: 다른 용서척도들과의 상관

구성타당도의 하나인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인 특성용서 척도와 다른 용서척도들과의 상관을 비교해 보았다. 아래 표 4를 보면 대인 특성용서 척도는 외국의 특성용서 척도인 Heartland 용서척도 하위변인 특성들과 유의미한

표 4 . 연구변인들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1-1	1-2	1-3	2	3	4	5
1. 특성용서총점								
1-1 용서반응 특성	.84							
1-2 긍정신념 특성	.74	.32						
1-3 부정신념 특성	.64	.34	.38					
2. 자기용서성향	.40	.35	.28	.24				
3. 타인용서성향	.69	.63	.45	.45	.41			
4. 상황용서성향	.44	.35	.34	.31	.58	.51		
5. TRIM(회피&복수동기)	-.44	-.43	-.20	-.35	-.17	-.42	-.20	
6. 상태불안	-.35	-.34	-.22	-.18	-.49	-.31	-.41	.20
7. 상태분노	-.33	-.28	-.21	-.25	-.31	-.26	-.28	.26
8. 우울	-.35	-.34	-.21	-.19	-.50	-.29	-.42	.22
평균	35.55	14.14	14.01	7.41	26.05	24.75	25.46	33.36
표준편차	6.45	3.88	2.84	1.72	4.82	5.35	5.02	12.86
문항내적일치도	.79	.76	.73	.59	.63	.71	.67	.94

N = 1,533,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 연구변인들간 상관, 평균, 표준편차(계속)

	6	7
6. 상태불안		
7. 상태분노	.50	
8. 우울	.70	.53
평균	43.95	14.02
표준편차	10.12	5.05
문항내적일치도	.92	.92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자기용서성향과는 $r = .40$, 타인용서성향과는 $r = .69$, 상황용서성향과는 $r = .44$).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인 특성용서이기 때문에 타인용서성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상황특수적인 대인용서를 측정하는 TRIM(회피와 복수동기)과는 $r = -.44$ 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특성용서 척도가 좋은 수렴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준거관련 타당도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인 특성용서 점수와 부적응 점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특성용서는 상태불안과 $r = -.35$, 상태분노와 $r = -.33$, 우울과 $r = -.35$ 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용서특성이 높을수록 불안, 분노, 우울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용서의 3가지 하위요인 점수들도 부적응 점수들과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18 \sim -.34$). 특성용서와 부적응 변인들과의 상관($-.33 \sim -.35$)은 상태용서를 나타내는 TRIM과 부적응 변인들과의 상관($.26 \sim .20$)보다 조금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신뢰도

전체 척도(최종 11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9이고, 고등학생 106명에게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1요인

(용서반응 특성 5문항)의 α 는 .76, 2요인(긍정신념 특성 4문항)의 α 는 .73이고, 3요인(부정신념 특성 2문항)의 α 는 .59이었다.

규준

부록 3에 대인 특성용서 점수의 규준을 백분위로 제시하였다. 백분위 25는 원점수 32점이고, 백분위 75는 원점수 40점이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말해서 원점수 32점 이하인 경우에는 용서특성이 '낮다', 33-39점의 경우는 '보통이다', 40점 이상의 경우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기타 분석 : 종교와 용서의 관계

특성용서와 종교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 간 용서점수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더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170) = -.83, p > .05$. 종교별(기독교, 불교, 무교)로 나누어서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 1169) = 1.80, p > .05$.

논 의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매우 위협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도덕적 특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용서를 알게 되면 공감과 수용능력이 생겨서 애초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갈등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용서라는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특성용서 척도를 만들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특성용서는 대인 특성용서로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용서반응과 용서에 대한 신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 특성용서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11개의 문항은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요인은 ‘용서반응 특성’요인으로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때 보이는 용서반응을 측정하는 긍정과 부정의 5개 문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유치는 3.06이고, 설명변량은 27.79%). 2요인은 ‘긍정적 용서신념 특성’요인으로서 평소에 억울하게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한 성숙한 사고를 나타내는 긍정 문항 4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유치는 1.07이고, 설명변량은 9.70%). 3요인은 ‘부정적 용서신념 특성’요인으로 용서에 대한 부정적이고 미성숙한 사고를 나타내는 부정 문항 2개가 들어 있었다(고유치는 .47이고, 설명변량은 4.26%). 세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41.75%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용서의 3요인 모형이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보다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MSEA에서 1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나빴지만(.13), 3요인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05).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경쟁모형으로 1요인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인들의 대인 상태용서에 대한 연구에

서 용서가 외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지, 정서, 행동반응으로 구성된 3요인이라기 보다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오영희, 2008,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특정한 상처에 대한 용서반응(상태용서)은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1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만, 특성용서는 평소에 억울하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보이는 용서반응, 긍정적 용서신념, 부정적 용서신념이라는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용서반응과 용서신념 점수의 상관이 .32~.34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용서반응 점수가 용서신념 점수보다 다른 연구변인들과 더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용서라는 특성을 교육할 때 용서신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용서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인 특성용서의 용서반응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은 외국 척도인 Emright Forgiveness Inventory(EFI, Subkoviak 외, 1995)와 TRIM와 유사한 문항이고 나머지 3개 문항은 한국인들의 용서반응을 대표하는 문항들이다(부록 1 참조).

둘째, 구성타당도의 하나인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인 특성용서 척도와 다른 용서척도들과의 상관관을 비교해 보았다. 대인 특성용서 척도는 외국의 특성용서 척도인 Heartland 용서척도의 하위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을 가지고 있었다(자기용서성향과는 $r = .40$, 타인용서성향과는 $r = .69$, 상황용서성향과는 $r = .44$).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

는 대인 특성용서이기 때문에 타인용서성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상황특수적인 대인용서를 측정하는 TRIM(회피와 복수동기)과는 $r = -.44$ 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두 가지를 보여준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특성용서 척도가 좋은 수렴타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소에 용서하려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많이 용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용서라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용서와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적응 지표인 분노, 불안, 우울과 특성용서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용서는 분노, 불안,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33 \sim -.35$). 즉, 용서특성이 높을수록 불안, 분노, 우울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과 권석만(2009)의 연구에서도 용서특질은 부적응 변인들(우울, 불안, 분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19 \sim -.32$), 적응 변인들(삶의 만족도, 행복, 자존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30 \sim .48$). 이러한 결과는 평소에 용서특성을 많이 길러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대인 특성용서 척도(11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9이고, 고등학생 106명에게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를 살펴보면 1요인(용서반응 특성 5문항)의 α 는

.76, 2요인(긍정신념 특성 4문항)의 α 는 .73이고, 3요인(부정신념 특성 2문항)의 α 는 .59이다. 본 연구에서 나온 Heartland의 타인용서성향(6문항)은 .71임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특성만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용서 점수에서 성별이나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지영과 권석만(200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용서특질에 대한 연구결과와 다르다. 먼저 성차와 관련해서 김지영과 권석만은 자신들이 실시한 3개의 연구중 1개의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성별에 따라 용서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Fehr, Gelfand와 Nag(2010)가 실시한 용서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175개의 연구에서 26,006명의 참여자)에서는 성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 = .01$). 따라서 용서는 성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와 관련해서 김지영과 권석만은 용서특질이 종교유무와 종교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종교가 있는 경우에 더 많은 용서특질 점수를 보였으며, 불교보다는 천주교와 기독교 집단이 더 많은 용서특질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 유무나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일관적인 결과는 앞으로 종교와 특성용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참고로 오영희(2011, 2012)가 고등학생들과 20-50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인 상태용서 척도에서

는 성별과 종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대인 특성용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신뢰도(문항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었고, 구성타당도와 준거관련타당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성별, 지역,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 점수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기준으로 백분위를 부록 3에 제시하였다.

대인 특성용서 척도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얼마나 용서하는 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척도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용서라는 도덕적 특성(강점 또는 미덕)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특별히 용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고, 용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대책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조수아 등(2011)의 용서신념척도(19문항)는 용서에 대한 다양한 신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현재의 용서상태를 보여주는 TRIM(회피와 복수동기)은 용서신념 요인(-.20 ~ -.35)보다는 용서반응 요인(-.44)과 더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서신념 요인(-.18 ~ -.25)보다는 용서반응 요인(-.28 ~ -.34)이 부적응 변인과 더 많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조수아 등의 연구에서 용서신념과 부적응 변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분노는 -.37, 불안은 -.15, 우

울은 -.19인데, 본 연구의 특성용서와 부적응 변인과의 상관은 분노는 -.33, 불안은 -.35, 우울은 -.35로 용서신념보다 더 많이 부적응 변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용서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는 용서반응과 용서신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임의표집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무선표집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대인 특성용서 척도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므로 비록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참여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용서와 같이 사회적·종교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앞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관찰, 가해자나 제 3자의 보고 등을 통한 다차원적인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용서라는 특성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연령층에게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가 필요하다. 넷째, 앞에서 설명했듯이 용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일반적인 성격특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평소에 얼마나 용서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특성용서와는 다르게 상처를 준 특정한 사람을 용서하는 상태용서도 있다. 또한 특성용서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용서하는 것과 신을 용서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용서의 과정을 살펴보면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해로 나아간다(Enright, 2012). 따라서 평소에 용서를 구하는 특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하는 척도도 필요하다. 넷째, 대인 특성용서 척도와 다른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분석 등을 통한 타당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일찍이 Nietzsche(1887; Enright & Fitzgibbons, 2000에서 재인용)는 용서는 약자들의 행위로 나약해서 공정한 해결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용서가 학대나 폭력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지속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은혜, 이초롱, 현명호(2009)는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용서에 대한 연구에서 헌신과 관계의 지속에서 용서가 부분매개를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용서가 데이트 폭력상황에서 오히려 가해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nright 등(Enright & Fitzgibbons, 2000; Enright, 2012)은 이와 같은 용서의 문제점들이 진정한 용서와 가짜용서(변명하는 것, 참는 것, 잊어버리는 것 등), 그리고 용서와 정의와 화해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답변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행동은 불의로 보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적인 치유의 과정인 용서와 2명 이상의 당사자들이 함께하는 과정인 화해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용서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을 때는 화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생활에서 사람들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용서에 대한 정의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용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용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앞으로 필요하다. 덧붙여서 용서와 부적응변인들(분노, 불안, 우울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는 용서의 종속변인으로서 부적응변인들을 연구하였지만, 조절 또는 매개 변인으로서 부적응 변인들의 역할, 부적응 변인들과 가짜용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예방 종합포털사이트 (www.stopbullying.or.kr).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지영, 권석만(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239-261.
- 매일신문(2011, 12, 24). 대구 자살 중학생 수개월간 또래들이 '학대'. <http://www.imaeil.com>에서 2012, 2, 20 인출.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2.
- 박종효 (2006).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종효 (2011). 용서, 행복에 이르는 길.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 박태우(2012, 2, 16). "건방지다" 땅에 파묻은 고교생... 조폭 뺨친 선후배 '폭력 대물림'.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에서 2012, 2, 20 인출.

- 오영희 (2001). 어떻게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인가? -도덕성 발달론적인 접근- *교육심리연구*, 15(3), 105-129.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59-77.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3), 645-663.
- 오영희(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17.
- 오영희(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99-813.
- 이은혜, 이초룡, 현명호(2009). 테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투자모델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85-403.
-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0), 60-78.
- 정성진, 서경현 (2011). 대학생의 특성용서, 상태용서, 용서 결정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6), 147-169.
- 조수아, 권석만, 임영진 (2011) 용서신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1-19.
- 한덕웅, 이장호, 전검구 (1996). Spielberger 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 1-1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SBS (2013, 1, 13). 학교의 눈물 1부.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pp. 241-244). New York: Brunner/Maxel.
- Enright, R. D. (2012). *The Forgiving lif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Gassin, E. A., & Knutson, J. A. (2003). Waging peace through forgiveness education in Belfast, Northern Ireland: A review and proposal for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3, 51-61.
- Fehr, R., Gelfand, M. J., Nag, M. (2010). The road to forgiveness: A meta-analytic synthesis of its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896-914.
- Gouldner, A. W. (1973). *For sociology: Renewal and critique in sociology today*. London. Allen Lane.
- McCullough, M. E., Pargament, K. I. & Thoresen, C. E. (Eds.) (2000), *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Jr., Brown, S. W.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ligman, M. E. P. (2007). *긍정심리학[Authentic*

- happiness*]. (김인자 역) 서울: 물푸레. (원진은 2004년에 출판)
- Subkoviak, M. J., Enright, R. D., Wu, C., Gassin, E. A., Freedman, S., Olson, L. M., & Sarinopoulos, I.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55.
- Tangney, J., Fee, R., Reinsmith, C., Boone, A. L., & Lee, N. (1999).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ropensity of forgive*. Paper presented at 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Thompson, L. Y., & Snyder, C. R.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2002).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원고접수일: 2013년 2월 27일

게재결정일: 2013년 3월 20일

Validation of the Interpersonal Trait Forgiveness Scale (ITFS) for Adolescents

Young Hee Oh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Trait Forgiveness Scale (ITFS) for adolescents. The sample consisted of 1,533 students in the 10th grade. Participants have completed the ITFS, Heartland Forgiveness Scale (HFS),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 (TRIM), Spielberger Anxiety and Anger Scale,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esults revealed that the ITFS scores were associated with acceptable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 $\alpha=.79$) and test-retest reliability ($r=.75$). Bot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upported a three-factor structure underlying the ITFS. The ITFS was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ther forgiveness measures (HFS and TRIM) supporting its convergent validity. Finally,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ITFS was supported with being negatively correlated with measures of anger, anxiety, and depression. Overall, these results provide support fo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TFS scor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adolescents, school violence, trait forgiveness scale, reliability, validity

부록 1. 대인 특성용서 척도

※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도 깊은 상처를 받고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신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당신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옳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각 문항을 읽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2. 상처 준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1	2	3	4	5
3. 상처를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다.	1	2	3	4	5
4.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편이다.	1	2	3	4	5
5. 시간이 지나면 상처 준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하다.	1	2	3	4	5
6. 용서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1	2	3	4	5
7.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 볼 수 있다.	1	2	3	4	5
8. 용서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1	2	3	4	5
9.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	1	2	3	4	5
10.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보상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	1	2	3	4	5
11. 용서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1	2	3	4	5

주 1. 1-5번 문항은 용서반응 문항이고, 6-11번 문항은 용서신념 문항. 용서반응 문항들 중에서 2번과 4번 문항은 외국 척도인 EFI와 TRIM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문항이고, 나머지 3개 문항은 한국인의 용서반응을 대표하는 문항들이다.
주 2. 역산문항(1, 2, 4, 7, 10번)

부록 2. 대인 특성용서 척도의 평균(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표준화계수

문항	M(SD)	문항-전체상관	표준화계수
1.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는 편이다.*	3.02(1.07)	.56	.76
2. 상처 준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3.00(1.04)	.54	.72
3. 상처를 쉽게 잊어버리는 편이다.	2.67(1.24)	.35	.50
4. 상처 준 사람을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편이다.*	2.75(1.05)	.46	.60
5. 시간이 지나면 상처 준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하다.	2.72(1.05)	.48	.53
6. 용서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3.27(1.00)	.47	.69
7.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 볼 수 있다.*	3.09(1.02)	.38	.61
8. 용서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3.88(.88)	.42	.64
9.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다.	3.79(.93)	.45	.60
10.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보상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	3.56(1.05)	.45	.71
11. 용서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3.84(.99)	.38	.58

* : 역산문항(1, 2, 4, 7, 10번)

부록 3. 대인 특성용서 척도의 원점수, 빈도, 백분위

원점수	빈도	백분위
11	1	0.1
13	1	0.1
15	4	0.4
16	3	0.6
17	1	0.7
18	4	0.9
19	6	1.3
20	6	1.7
21	10	2.3
22	6	2.7
23	14	3.7
24	15	4.6
25	20	5.9
26	33	8.1
27	34	10.3
28	33	12.5
29	54	16.0
30	57	19.7
31	76	24.7
32	77	29.7
33	93	35.7
34	110	43.0
35	97	49.3
36	97	55.6
37	98	62.0
38	89	67.8
39	95	74.0
40	77	79.1
41	67	83.4
42	47	86.5
43	40	89.1
44	43	91.9
45	40	94.5
46	16	95.6
47	14	96.5
48	17	97.6
49	19	98.8
50	4	99.1
51	6	99.5
52	4	99.7
53	2	99.9
55	2	100.0

N = 1,533 명